

불안한 수학여행... '무늬만 안전요원' 배치

12시간 속성 교육으로 끝...상당수가 여행사 가이드

광주 이번주 1만명 가는데 비전문가 동행 불만 폭주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우리가 안전하게 모셔야 할 판입니다.” 가을 수학여행이 한창이다. 이번 주 광주지역 학교에서만 40여곳 1만여명이 수학여행을 다녀온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불멘소리가 높다. 상당수 안전요원이 여행사 가이드로 '12시간 교육'을 수료한 '무늬만 안전요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65세가 넘는 고령의 안전요원도 활동해 학교측은 되레 우리가 안전요원을 모셔야 할 판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1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5학급 또는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씩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중·소규모 수학여행단은 1명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 필수다. 안전요원은 수학여행단과 동행해 교원을 보조, 학생 인솔과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안전을 강화한 조치다.

하지만 대다수의 안전요원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져 효과가 커녕 되레 '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안전요원이라고 하면 간호사, 응급구조사, 경찰, 소방안전교육사 등 전문영역을 떠올리지만, 교육부 지침에는

이들뿐 아니라 국내여행 안내사·국외여행 인솔자 등 여행사 가이드도 포함돼 있다. 가이드는 교육부가 지정한 곳에서 12시간 안전교육을 받으면 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1000여명의 이수자 중 가이드는 500명에 달했다. 올해는 34명이 교육을 받았다.

여행사의 경우 수학여행 안전요원 배치의 의무화되면서 안전요원 확보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됐고, 직원과 가이드들의 안전교육 이수를 독려했다는 분석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간호사·응급구조사 등 전문안전요원을 수학여행 때 동행하지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전문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수학여행이 봄·가을에 집중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책임 문제에 대한 불만도 높다. 안전요원의 지도아래 견학길을 건넌다 사고가 날

경우 안전요원이 아닌 인솔교사와 학교측의 책임을 지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학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인솔교사와 학교측이 진다”면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안전요원을 왜 모시고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안전요원이라는 명칭 자체에 어폐가 있다. 안전 전문가도 아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안전요원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정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생활과장은 “안전은 응급구조만 있는 게 아니다. 전기·소방·수상·산악 등 점검분야가 다양하다. 안전요원이 전기 점검을 할 수 있겠느냐”며 “수학여행의 안전문제를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가보조금 불법거래 3명 장성군, 경찰에 수사 의뢰

장성군은 13일 수역원 상단의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을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A(47)씨 등 3명을 장성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여 '관상 산림 식물 재배단지 지원 사업'을 공모받아 A씨에게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성에 1650㎡ 규모의 유리온실을 짓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4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장성군 관계자는 “국가관외위원회에 관련 사안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서류상 3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성경찰은 “현재는 수사의뢰서만 접수된 상태로 군으로부터 관련자료가 넘어오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수능 기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2일)을 한 달 앞둔 13일 광주시 서구 무각사를 찾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구내식당 직영 속여 보조금 타낸 병원들

병원장 등 무더기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속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병원장 4명과 급식업자 1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속칭 '사무장 병원'에서 진료를 한다

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2명과 매월 10만원 받고 명의를 대여해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명 등 12명도 적발했다.

목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구내식당 운영을 급식업자에게 위탁했으면서도 직영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보조금 1억8000만원을 받아 쟁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명의 면허를 빌려 인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간호인력 보조금 8000만원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와 전북 군산 등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46)씨 등 병원장 3명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억5000만원의 식당 직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면허

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42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병원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위탁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사무장 병원 등은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직영을 위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보다는 직영을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 병원 10곳 중 7곳 독감 백신 동나

정부 수요·공급 조사 차질 무료접종 헛걸음 잇단 불편

정부가 동네 지정 병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지정 병원 10곳 중 7곳에서 이미 백신이 동나 대상자들이 헛걸음을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수요 조사와 백신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 병원별로 백신 '부족부반익'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447곳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무료접종 의료기관' 중 이날 현재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116곳에 불과하다. 이미 331곳의 병원에서 백신이 동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지원기관'을 동네 지정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접종 기관이 보건소 등으로 한정돼 접종 희망자들이 매년 장시간 대기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올해 예방 접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서구 쌍촌동 한 병원은 무료 접종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백신이 떨어져 방문객들을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구청에 공장 추가

백신 지원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며 “백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찾아오는 분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태는 지자체가 신청한 물량을 질병관리본부가 100%로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광주시는 예방접종에 앞서 44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백신 13만3267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1차분 8만240개, 2차분 5800개 등 이날 현재까지만 받은 백신은 모두 8만6040개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이 백신들을 병원별로 최저 20개에서 최대 2000개까지 분배했다.

현재 백신이 떨어진 의료기관은 동네 병원이 대부분이고, 대형 의료기관들은 아직도 많게는 수백 개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4일 1만5000개의 백신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며 “시민들에게 예방접종도 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를 보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이트도 지정 의료기관이 백신 보유 현황을 수시로 교체하지 않아 현재 116곳의 의료기관 중 20여 곳은 보유현황과 달리 백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마지막 메르스 환자 다시 양성 판정 격리

공식 종식 선언 늦춰져

한때 국내 증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판정을 받고 퇴원한 마지막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이에 따라 이날 말 예정인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은 늦춰질 전망이다.

양방국 질병관리본부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인 80번 환자(35)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폐렴 증상이 사라지고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한 지 열흘 만에 재발한 것이다.

/연합뉴스

이 환자는 11일 오전 5시30분께 발열, 구토 등 증상을 나타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2시15분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입원했다.

방역당국은 서울대병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총 2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가족 4명, 의료진 및 병원직원 29명, 병원내 환자 및 보호자 16명, 구급차 이송 관련 12명 등 총 61명을 자가 격리했다.

/연합뉴스

성매매 전력자 명단 입수 예약제 영업...한달도 안돼 '덜미'

○원룸촌에 방 2개를 빌려놓고 '예약제'로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20대 남성과 여중업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정모(25)씨 등은 최근 한 달간 서구 쌍촌동에 원룸 2개를 임대, '비밀스런' 업소를 꾸민 뒤 휴대전화 등을 통해 사전에 약속이 잡힌 남성들에게만 한차례에 10여

만원씩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700여만원을 쟁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를 이용한 전례가 있는 남성들의 명단을 함께 입수해 '짧고 굵게' 치고 빠지려 했는데 영예에 들어 간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단속에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패는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h3>7층 상가건물매매</h3> <p>〈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p> <h4>7층 건물 (사우나 건물)</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2~5층 (사우나, 주택) ✓ 6~7층 (설계사, 건설사) <p>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1억5천, 용 6억)</p> <p>매가 14억 5천</p>	<h3>2층 상가 매매</h3> <p>〈나주시 삼영동〉</p> <p>☆ 나주 혁신도시 10분 !! (토 205평, 건135평) 영강고교/영강초교 정문 앞</p> <p>1층 6칸(올임대) 2층 2칸(사무실,주택가능)</p> <p>(보2천, 용1억2천 - 월수익 200만)</p> <p>매가 2억 9천</p>	<h3>평택 토지 전문</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택 신도시 고덕면 (528만평) ② 삼성전자 입점 (120만평) ③ 평택 미군기지 이전 ④ 평택 항 <p>☆ 토지 투자자 모집 (1억~10억)</p> <p>☆ 토지개발 하실분 모집 (토지,공장부지,전원주택,근린주택)</p> <p>010-6670-9800</p>	<h3>법률경매</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35억4천 총룸 58개, 광주 과학고등학교 인근, 1층 상가 2. 서구 농성동 (토86평,건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약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K지사 부근 3. 북구 각화동 (토 337평,건510평) 감정가 22억3천 → 최저가 15억6천 → 1층 (음식점및 영업소) 2층 (학원및사무실) 3층 (사무실 등) 4. 서구 치평동 (토 3평,건 90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10층 중 7층 (상무지구 변화가 위치) 유흥지점 운영자 추천 5. 북구 유동 (토240평,건 818평) 감정가 24억3천만 → 최저가 24억3천만 1층(점포) 2층~5층(사무실) 지하(주차장) <p>※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 100억)</p>	<h3>경매교육</h3> <p>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원스톱 강의</p> <p>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p> <p>062-382-5500, 010-6832-9700</p>
---	---	--	---	---